



서울대학교 同窓會 報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계로 寄號 7500875
對淸口座 010017-31-0621565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1] 月刊

1976. 4. 13 贈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3년 12월 1일

第189號



■ 제 93년도에 오른 동창회의 이모저모: 본회를 비롯한 單科大學(院) 및 各級동창회의 올해 활동상황은 크게 振作되었다. (사진) ① 지난 8월 유럽지역 지부결성을 위해 會長團이 獨逸를 방문, 支部결성에 임했다. ②工大동창회 新入회원 환영식 ③家政大 新入회원 환영식 ④農大 定總 ⑤經大院 定總모습등 여러방면에서 활발한 행사가 치러졌다.



活性化로 다져진 同窓會 1년

冠岳春秋

이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다. 본보도 이번 號로서今年를 마무리짓는다. 金泳三大統領후보 當選者의 當選을 祝賀하는 同窓會초치 祝賀宴을 본보기로 보고 한 것이 었고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려 한다. 창으로 歲月의 흐름은 빠르다. 이제 우리도今年度 同窓會活動을 되돌아 보며 새해의 새出發을 다짐해 보자.

本報의 新年號가 金泳三同門의 大統領 當選 祝賀宴으로 장식할 수 있었음은 우리 20餘萬同門의 矜持를 한결 높여 주었다. 우리 同門이 大統領을 輩出し 祝賀宴을 크나큰 榮光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同門들은 새政府의 出帆을 마음껏 祝福했던 것이다.

今年度의 特記할만한 事業으로서 海外支部의 新設 및 組織強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國際化時代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僑胞는 世界 곳곳으로 進出하고 있으며 그중의 상당수를 우리의 同門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同窓會는 이점에 着眼하여 일찌기 海外支部設置를 計劃해 왔다. 그러나 이計劃의 實現은 매우 지지부진했다. 그 큰 理由 중의 하나는 綜合大學校로서의 同門意識의 缺如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事實은 우리가 總同窓會를 조직할 당시와 같다고 하겠다. 海外의 同門들도 同窓組織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單科大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名實相符한 서울大學의 모임을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활발한 海外支部結成 및 後援을 전개했다.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에 걸쳐서 同窓會長團은 美洲를 순방하면서 기왕에 조직된 支部의 內實을 다짐하고 支部가 없는 大都市에서는 새로운 支部設置를 후원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본報의 美洲版의 發刊이다. 로스앤젤레스의 同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보는 그후 美

洲版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本報는 이제 美洲의 同門들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會長團은 또 8월에 유럽 8개국을 순방하여 同窓會의 支部設置를 촉구했다. 유럽지역에는 프랑스에만 支部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 활동도 매우 미미했다. 이번의 會長團訪問으로 유럽내륙에 있어서도 同窓會活動에 轉機를 찾았다 하겠다. 이러한 海外의 同門들을 위한 同窓會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결하여 開校記念 登山大會는 海外의 同門들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어느 同門은 이 行事에 맞추어 母國을 방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을의 登山大會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參加同門數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同門들의 중요한 年中行事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으로 또한 同窓會의 보람이다.

母校在學生을 위한 獎學金支給도 예년과 같이 이루어졌다. 獎學事業은 同窓會의 基本事業이다. 금년에는 두學期를 합쳐서 1억3천5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同門들의 氣勢에 비추어 그 額數는 아직도 미진하다 할 것이나 이 事業은 앞으로 基金造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추가 정해질 것이다. 同窓會는 獎學事業 외에 母校支援을 위해 도서관의 修繕을 설치해주었다. 비록 작은 誠意이지만 하나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同窓會가 약속한 科學技術研究支援基金造成이 부진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事業은 금년도에別實績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實名制實施로 인한 環境의 與件이 매우不利했고 또 科學技術의 振興은 이제 國家事業으로 轉換되어 同窓會의 運身の 폭이 좁아졌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宿題로 남게 될 것이다. 끝으로 同門모두의 歲末의 幸運을 祝願한다.

93년도 활동현황을 돌아본다

圖書館 휴게실 설치비 8천만원 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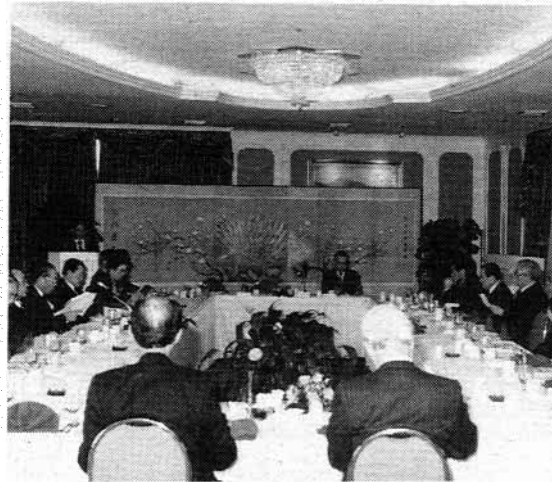
유럽 8개국 支部 결성 보고

123次常任理事會 53次 冠岳理事會 관악회 監事도 留任 결정

本會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7시30분 호텔 리베라에서 同窓會 제123차 상임이사회 및 冠岳會 제5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理事會에는 崔主鏞 회장을 비롯 모교 金商周 부총장, 동창회부회장, 상임이사, 관악회이사, 감

한 변형영은 열의와 성원을 호소했다. 「이날에도 국내외를 망라하고 동창회 활성화와 동창회의 우의 증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어 모교 金商周 부총장은 모교를 소개하며 「최근 화성회장, 신자은총장이 학장이며 동창회에서 지원

을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6년간 임의대동창회장으로 있던 鄭佑賢(전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과 李誠載(신임회장)의 대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親睦會(친목회)를 10월 10일 일요일에 개최했다.



▲ 지난달 11일 개최된 동창회 상임이사회

방글라데시 支部 창립

辛成梧 주재大使會長 추대

同窓會 海外支部未結成地였던 방글라데시支部가 駐在國韓國大使인 辛成梧(64년 法大卒)동문의 의해 창립되었다.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辛大使를 중심으로 支部 결성을 위한 辛成梧 회를 열고 辛成梧(前)을 支部長으로 추대, 지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말론 柳(前) 63년 文理大卒) 회장을 임명하고 鄭海成(70년 工大卒) 동문, 李益守(72년 農大卒) 총무, 후임으로 金秉旭(84년 法大卒) 동문을 선임하고 지부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1백20여명의 회원이 있는 시드니지부는 매 2개월마다 여는 親목會(친목회)를 비롯 추계 양회 및 송년회 행사를 갖는 등 동문간의 두터운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야유회로 活性化 다짐

美大 동창회 事業 확장 논의

美術大學同窓會(회장 金瑞鳳)는 지난 10월 30일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동창회야유회를 가졌다. 305명의 동문들이 참석 한 이날 행사에서는 양(一)로 동창회 진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역사·문화·환경·모색, 전람회 개최 및 동문·미디어·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관심을 집중시켜, 친목단위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장문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새해 豫算 확정

行大院 이사회 개최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 5일 롯데호텔 버클랜드에서 36명의 임원이 모여 인사·이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93년도 업무계획

馬山支部서 任員회의 열려

동창회 馬山支部회장 金炯英은 지난 11월 1일 11월理事會를 시내 음식점에서 개최, 金炯英을 비롯 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

올해 活動현황 평가

齒大 임원회의 소집

齒科大學同窓會 회장 李春根은 지난 11월 5일 오후 7시30분 모교 교수회 의실에서 李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이 모인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93년도 93년도 치대동창회 활동현황

金元龍 교수 持病으로 別世

지난달 14일 三佛 金元龍(45년 京城帝大卒)교수가 持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金교수는 61년부터母校 교수로 재직하면서 「韓國考古學概論」 58권의 著書와 2백50편의 논문을 발표, 不毛地에 가까운 考古學과 古美術史의 기록을 확립한 學界의 巨木이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모교 개교기념식에서 제3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金교수의 마땅인 劉聖淑 여사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사 1천여원을 모교 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冠岳會 감사

白文基 등 留任

지난달 11일 열린 冠岳會 제58차理事會에서 오는 12월 11일로 만기가 되는 白文基, 朴英俊 監事를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冠岳會 監事의 任期는 2년으로 오는 95년 12월 11일까지이다.

트에서 93주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36명의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A, B조로 나누어 복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A조에 金商周(前) 70년 文理大卒, 사대교수, 金博光(65년 藥大卒, 약대교수), B조에 宋基濤(前) 81년 人文大卒, 인문대교수, 全貴永(前) 65년 文理大卒, 사대교수, 組가 우승, 푸진한 상을 받았다. 매회 많은 교수들의 열성적 참여로 친목을 돈독히 해온 同窓會는 경기를 마친후 회식자리에서 인기가 만만치 않은 金商周의 뒤를 이어 차기회장에 金學主(前) 56년 文理大卒, 인문대교수)를 선임했다.

恩師와 한자리 마련,母校기리기도

서울대 주창 30주년 기념으로
을롯데호텔에서 가졌다.

任員교체登山 모임 갖기로

서울대卒業30周年記念式
을 롯데호텔에서 가졌다.

醫大17회 졸업30주기 기념宴

醫大17학동기회(회장河權念)는 지난 9월 23일 서울대卒業30周年記念式을 올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날 河호진은 『출생30주년 이 되는 뜻깊은 날에 同門인 친구와 학벌에 無拘束한 친목을 하고자 하는 바를

恩師특강모임도 마련

農化學科長(의)회장李致燦)은 최근 무연고과에서新舊의친구간담회를개최,前任의장단,노고를치하한會則가정등의안건을처리했다.

또李春寧명예교수의特講,금요일명제,심시후의문제등에대한참가회원의의견교환시간을가졌는

特許廳서 16년 심사관 지내



여성으로서 국내 처음으로 特許裁判官格인 심판관으로도 등장 話題가 된 金瓊瑛은, 金瓊仁(73년) 母校 藥大, 75년 大學院을 나와 임차현연구소 방식선도의원소실에서 2년간 근무하다 특허심사하면서 尖端技術의 산전부재를 신속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金瓊仁는 특허심사라는 전문업무에 종사하지 16년이 된다. 『국내 굴지의 화자를 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심사하면서 尖端技術의 시권 계양을 했을 때 무척 기쁘고 보람도 느꼈다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문직종이라 말한다. 申鉉柱(63년) 法大卒 변호사·동문이 夫君으로 1남 1녀를 둔 夫婦동문이기도 하다.

家政科 동창회

데, 지난 5월 정기총회후
처를가진 모임이어서인지
참석률이 높았다.

한편 부회장으로 홍性根
(61년卒) 金哲煥(64년卒)
姜達魯(63년卒) 李賢秀(64
년卒) 金秀一(65년卒) 金
寅相(69년卒) 申明坤(79년
卒) 梁明國(84년卒) 林茂
松(89년卒) 등을들 각각
선임했다.

백여회원 참석
家政科 동창회

農家政學科동창회(회자
姜正子)는 지난 10월 12일
同科세미나실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3년
정기총회겸 同科創立30周
年記念式을 가졌다.

이날 94년도부터는 학부

同門운동회 열기로

原子核工科 임원회의서

지난 9월 24일엔 同科
鄭基亨과 과장등과 함께
「공정화와 학회의 대화」의
시각을 갖는 한편, 2학기
獎學金을 4학년 실재추
김영선, 2학년 양희창,
1학년 김영환등을 선정
하였고 「금주애인」 2백만원을
전달했다.

農敎科 前夜祭
창립 30주기년

(教育전공) 宣浩社
 會教育전공 宣浩社
 同科創立30周年記念式과
 추경아제를 개제 朴泰
 植명예교수를 비롯한 자
 교수와 함께 지난 30여
 년의 同科발전성취를 중
 으로 대담과 해후의 시
 을 가졌다.

종래에는 가축의 傳染病의 진료 및 치료로 畜産物의 양적 생산에 獸醫學이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社會文化의 環境의 急激한 變化와 卽은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는 現代 社會에서, 「獸醫學도 그 領域과 機能이 넓어져 畜産物의 衛生의 인 생산, 遺傳工學의 技法을 응용한 診斷技法과 豫防藥의 開發, 生命科學研究에 必要한 實驗動物에 대한 연구, 人類共通의 傳染病豫防을 통한 人類保健向上, 醫藥品 및 新生物質의 開發을 위한 藥理藥効 등의 研究로 확대됨에 따라 隣接科學과의 交流와 協力은 絶對한 要件임이다」라고 評語하는 獸醫大 趙忠鎬先生은 「冠岳」으로의 合流가 母校 獸醫學徒의 宿願이고 獸醫學의 現代化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大學・大學院 동창회 活動 현황

各學科大學院同窓會의 各種事業과 主要活動相은 漸次 母校支援과 獎學사업으로 轉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各계 동문들의 참여의식도 크게 活性化되어가고 있음을 알되 別期·科別同窓會의 활동도 浮現되어가고 있는 것이 尤해의 특기할 사항이다. 특히 「스승의 날」과 「母校찬인 날」 행사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 本報에서는 年末을 결산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뜻에서 各級同窓會가 금년도에 펼친 활동현황을 項目別로 소개하는 紙面을 마련했다.

클럽에서 개최예정
 ▲ 毎月 會長團月例会
 催
 ② 獎學事業
 ▲ 向上獎學會 장하근
 금: 2명, 12명, 경제
 명, 국제경제 4명
 2학기 등록금으로 2
 백90만원 지급
 ③ 母校支援
 ▲ 최은수 졸업자 시
 2월24일 경영, 경제:
 경제 총6명에게 산하

會報발행 회원명부刊行 크게 振作

롯데월드호텔 ①豫·決算

중·양가축전염병연구소
설·파천연구소 ①사업
결산보고 ②감사보고
산실의 ③회칙 개정 ④



1 主要行事

2 獎學事業

시장에서 총90점을展

동, 모교지원사업 등

심·別·科·期

▲第一次 서울대 同門
교향악단 演奏會: 8월 31
일 예음의 전당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
금: 3학년 김선민(현악전
공양에게 등물금 전액 지

醫科大學

▲主要行事
▲新入會員 환영회: 2월
25일 하트호텔

▲定期總會: 3월 17일
하트호텔 ① 93년 事業計
劃 및 豫算案의 ② 會員
模範 同會 支會 表彰
任員改選

▲在學生과의 懇談會: 5월 17일 장영궁 先後輩의
紐帶강화

▲同窓會長會議: 5월 3
일 ① 대니스·바둑대회 병
행 개최 동창회 活性化의
支會會長會議: 9월 8일
신라호텔 同窓會 및 支會
活性化의

▲同窓의 날 行事 개최
10월 9일 ① 母校와 共同
개회, 卒業 40周年(第7回)
同期生夫婦동반초청 ② 前
泰俊(59년졸) 국외 白桂衡
(83년졸) 각각 5백만원씩
(83년졸) 각각 5백만원씩

▲同窓의 날 行事 개최
12월 28일 하트호텔 ①
送年會 및 理事會 ② 慶祝
同門祝賀宴 실시

▲2母校支援
在學生 各宗行事 및
活動 지원

▲3刊行事業
▲同窓會消息(월간) 발
행 94년 1월 6호부터
發刊配布

▲主要行事
▲定期總會: 2월 25일
대안아사호텔 安사반개
정파동으로 10월 10일 야대
총동창회 행사추진

▲藥學會 定期總會: 6
월 15일 18일 日本 東京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
금: 총 3백만원씩 500원
씩에 지급

▲3母校支援
▲3刊行事業
▲同窓會消息(월간) 발
행 94년 1월 6호부터
發刊配布

藥學大學

▲主要行事
▲定期總會: 5월 21일
모교치대 대강당 ① 李勝雨
前名譽會長에게 감사패 전
달 ② 李鍾旻 名譽會長에게
위촉장 전달 ③ 李鍾旻 前
게기년품 증정 ④ 李鍾旻
고 및 감사보고 ⑤ 李鍾旻
정 및 사업계획·예산안 심

齒科大學

▲主要行事
▲定期總會: 5월 21일
모교치대 대강당 ① 李勝雨
前名譽會長에게 감사패 전
달 ② 李鍾旻 名譽會長에게
위촉장 전달 ③ 李鍾旻 前
게기년품 증정 ④ 李鍾旻
고 및 감사보고 ⑤ 李鍾旻
정 및 사업계획·예산안 심

音樂大學

▲主要行事
▲定期總會 및 모교반환
행사: 10월 23일 모교 시청
각실 李誠載 신의환전선출



▲行政大學院동창회 임원간담회

▲母校教授停年退任式참
석: 2월 19일 吳相洛 韓義
煥교수

▲母校卒業式참석: ① 2
월 28일 經營學碩士 1백4
명에게 會員名簿을 전달
② 8월 30일 經營學碩士 15
명에게 會員名簿을 전달

▲會長團 및 幹事會議: 6월 29일 定期總會에서 委
任된 副會長 및 理事 選任
補強회의

▲大田 EXPO參觀: 9월 18일 李俊鶴 부회장이 태아
산임會長·조정會長團장관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급
... 대학원경연결과 지치회
장 金東會에게 등물금 전액
지급

新入동문 화영연 일어 活性化 유도 — 一部동창회선 아직도 休眠상태 演奏會 전담회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척

▲理事會: 5월 17일 모
교치대 소회의실 ① 총회
회무 및 재무보고 검토 ②
인원개선

▲評議員會議: 5월 18일
모교 교수회의실 ① 92년도
회무 및 재무보고 ② 93년
도 예산안 심의

▲理事會: 6월 12일 모
교 교수회의실 ① 회무 및
재무보고 검토 ② 회무
및 재무보고 검토 ③ 東均교수學校
보조장인의 ④ 동창회
지원 및 장기해임교수
수지인비 인상방안 논의

▲理事會: 8월 6일 모
교 교수회의실 ① 재부현황
검토 ② 등물금 조달방안
논의 ③ 동창회비 납부
방안 논의 ④ 동창회비
원반인 논의 ⑤ 동창회
심화 방안 논의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급
... 유석인·이재환 등 총 8명
에게 7백42만 4천원 지급

▲主要行事
▲定期總會: 4월 21일
李燦河 부회장 會長職務代
行 李鍾旻 부회장 3월 29
일 別世 定期總會준비 및
任員改選회의

▲定期總會: 4월 30일
① 李燦河 부회장 부대
長被選 ② 任員改選 副會長
및 理事陣 대폭확충 幹事
團인구교제 ③ 92년도 決算
승인 및 93년도 豫算案의

▲主要行事
▲定期總會: 11월 5일
동창회관 ① 결산보고 및
사안보고 ② 인원개선 회의
魏駿揚 부회, 부회장 11명
중 4명인 7명개선

▲2獎學事業
① 장영고 학생 10명에게
총 3백20만원 지급

▲3刊行事業
▲會報發刊: 동창회보
12. 13호 발간, 배부

▲主要行事
▲定期總會: 11월 26일 스
칸디나비아 클럽 93년 결
산 및 94년 사업계획과 예
산안 심의 통과

▲2母校支援

教育大學院

▲主要行事
▲定期總會: 11월 5일
동창회관 ① 결산보고 및
사안보고 ② 인원개선 회의
魏駿揚 부회, 부회장 11명
중 4명인 7명개선

▲2獎學事業
① 장영고 학생 10명에게
총 3백20만원 지급

▲3刊行事業
▲會報發刊: 동창회보
12. 13호 발간, 배부

保健大學院

▲主要行事
▲定期總會: 11월 26일 스
칸디나비아 클럽 93년 결
산 및 94년 사업계획과 예
산안 심의 통과

▲2母校支援

新聞大學院

▲主要行事
▲新年會: 1월 28일 쌍
용빌딩 스카이라운지 새로
博士學位 받은 黃佑權 동
문 등 6명에게 기념패를

環境大學院

▲主要行事
▲定期總會: 6월 16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① 환경
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② 92년도 동창회
활동보고 93년 계획도 결
산의 및 사업계획·예산
안 심의 확정 ③ 지역동창
회 활성화 방안과 모교대
학원·발전기금 모금등 동
지원방안 논의

▲第一次 理事會: 2월
5일 신사동「녹원」 93회
계년도 회원명부 발간 계획
안 추진, 동문주 소파안과
광화문방안 논의

▲第二次 理事會: 5월
7일 서울신원회관 ① 92
회계년도 결산안 및 93회
계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사전심의 ② 모교대학원 개
원 2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방안 논의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
금: 성정호수자 7명 및
수석인학생 3명에게 총 3
백20만원 지급

▲3母校支援
▲「학술지」環境論叢 제
31권 발간에 40여만원 지
원

▲모교 환경대학원 학생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環
境研究」제12권 발간비용
중 30만원 지원

▲4刊行事業
▲同窓會報 제25호 발간
... 배부

▲會員名簿 發刊: 1천
2백부 發行, 배부

▲文獻購入 및 優秀論文
審査支援費 2백만원 전달

▲3發刊事業
▲名簿發刊: 1월 1일 서사
과정외 박사, 보건간호사
이수과정 포함한 93同窓會
會員名簿 發刊

▲其他
▲先後輩만년의 장터: 4월 3일 모교 庭園 ① 모
교원홍소개 ② 모교발전기
금 8천만원 모금

▲同窓會基金마련위해
任員陣에서 2천만원 조성

▲主要行事
▲定期總會: 2월 26일
루테호텔 동창회 활성화방
안 논의

▲第33次 定期理事會: 4월 26일 루테호텔

▲第33次 定期總會: 5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
홀 黃寅性 國務總理 就任
入閣 榮轉同門 自祝宴

▲新入生 歡迎會: 3월 18일 모교 교수회관

▲臨時理事會: 11월 5일

▲臨時總會 및 同門招請
特別講演會: 11월 6일 세
종문화회관 세종홀

▲2獎學事業
1. 2학기 獎學金 지
금: 우수후배 10명에게 6
백66만 7천원 지급

▲3母校支援
▲소지지 發刊費 1백20
만원 및 발송비 2백만원
지원

▲4刊行事業
▲同窓會員名簿 2천5
백부 發行, 배부

독립된 박물관 건물이 없
이 그동안 도서관의 6층 6
백여평의 좁은 공간에서 결
박살이를 해오던 母校 博物
館(교장 安耀濤)이 내집마련
과 집안일을 끝내고 신촌건

보초실 6개, 지상 1~2층에는 고고역사전시실, 전통미술전시실, 이룸미술전시실, 현대미술전시실, 자연사전시실,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유물부속연구실, 5개부별 연구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은 지금으로부터 20~30만년전에 형성된 엄청난 집자리, 산굴과 양양군 도화리, 신평리 유물들이 전시돼 있으며, 이중 전국 유일처에서 출토된 아슐리안층 주먹고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기구석기 유물이다.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간화도 양양군 오산리의 서늘시암시동 및 서해안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단추, 칼과 수레자

한글 및 동양의 문자를
기원 및 문화를 연구할
구하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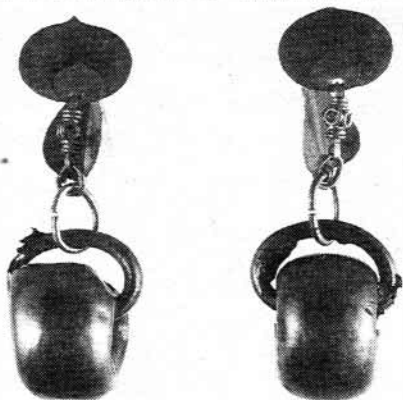
영문과 사람의 마음을
가 이해하는 것은 영문의
전에서 출발한다. 영문의
사상 의의에 있어 그 본질은
樂浪의 토기 및 벽화에서 전
사된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英文化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서 출발하여 저술되어 있는
英文化는 당시의漢字로만
표현되고 있어 따라서 이

고려시대 銅鏡 등이 전사되어 있다. 조각품은 수라산에 많지 않으나 발해 동경성에서 출토된 土製 佛像들이 국내 유물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전불미술전시실은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로 꾸며져 있다.

人類民俗展示室 부장 王翰碩은 1백40여점의 국내외 일화와 및 민초화 관계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대표작인 유물로는 조선시대 궁중행사

알할 수 있다。

아민족품, 국내 유물의 에
스키모 민족품 등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유물
의 공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 영월지역서 출토된 캄브리아기 삼엽충(上)
▲ 황오리 1호분 출토 금귀걸이(下)

이 전사되어 있다. 이 책은 주로 설촌종, 몽촌토성, 풍납토성 그리고 암사동, 미사리 등에서 출토된 것들로 이들을 통해 초기백제의 문화양상을 잘 알 수 있다.

傳統美術展示室 安輝 漆에는 우리나라의 古書畫類 佛像, 陶磁器와 金屬工藝 등 미술품 1백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중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물들을 통해서도 다
른 시간과 공간속의 문화가
조형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어
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現代美術展示室부장 劉權
俊에 사친 조각 공예 건축
사에 사친 조각 공예 건축
영상 시각 공예 환경의상디
자인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작품들이 전시
되어 있다.

先史시대 遺物等 國寶級 소장품 수두룩

舊·新石器 三國시대 出土品도 많아
전통미술품도 자기등 희귀품도 展示

물에서 지난 10월 14일 개관했다.

41년 1월 57명의 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뒤 46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75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8년부터 처음 이회동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지난 84년 창간해 42억원(政府出資 32억원)의母校出資 10억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은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
해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 제
대로 된 박물관은 모교가 처
음이 셈이다.

총 6천9백64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모교 박물관
은 신축공간답게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적외선 감지
시스템, 유류검출을 위한 향
온 감응장치가 설치돼 있다.
배치는 지하층에 자연사유물
보존실을 비롯, 고고학사유
물보존실, 인류박물관보존
실 등 40~50평 크기의 유물

示室 부장 崔夢龍은 1백25명의 면적에 15개 집영장이 설치돼 있고, 석기와 토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옥제품 및 귀금속류 5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이 유물들은 모교 박물관이 60년대 이래로 실시한 5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수득된 유물들이 대부분이며, 시대별 유적별로 정리돼 있어서 한반도의 선사시대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다.

유정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골기와 흑요석제 석기를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귀중한 유물들로서 골제 단도와 침, 바늘 및 바늘촉, 열갈작, 손칼 등은 모교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는 혼암리유적과 미사리유적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으며 혼암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와 다화미를 비롯한 금동발찌

먼저 **회화론**은 **모음론** 지
정권(讀書堂契會圖)(모음 8
67호), (南池耆老會圖)(모
음 866호), (坤輿萬國全圖
屏風)(모음 849호) 등 지
정권회화와 (李恒福肖像畫,
鄭 敎의 (六望峰圖, 金弘
道の (神仙圖, 張承業의
(芝鹿圖) 등의 모음이 있다.
그리고 서예로는 광개토왕비
탑본, 傳 安平大君金泥書,
金正喜의 서예 등이 있다.
공예품으로는 靑磁, 粉靑沙
器, 白磁 등의 도자기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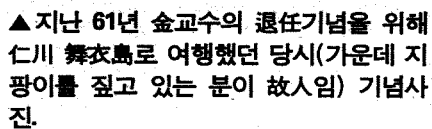
의 교수와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되어진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모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연구로 전사하여 과학과 공학에 활용하여 정돈이다.

또한 영어로 자연사분야의 수집품 확충을 위해 박물관 주관하여 국내의 자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표본을 모으고 외부로부터 표본을 기증받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을 수반한다

閔斗基

55 文理大卒・母校回金



연구본위기, 독특한, 엄격한學風이 뒤

한국 東洋史
研究筆記의
스스로와 남에게 극히 엄격하
셨던 학문연구태도가 東洋
史學界에 큰물결기가 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
늘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과에서 석사과정 이전 박사
과정 이전 수업을 하려면 중
국의 전통사화에 대하여 공
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예의 하나이
다.

선생님의 학문태도는 엄
격 그것이었다. 최선을 다
한 文獻考證을 몸소 시범
보이셨으므로 그의 제자들
에게는 이른바 「전통」이 가
통하지 아니하였다. 자료구
하기가 힘들고, 생활에 조
들려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그들의 가늠할 법
한 필적은 선생님에게 전해
줄 것이 아니하였던 것이다.

은 스스로 단아한 글씨를
잘쓰시는 부인뿐 아니라 우
리나라의 옛 선인들의 사회
자질도 우수한 것을 전집이
소장하고 계셨고 물론 사회
를 보는 一家見을 갖고 계
셨기에 사회중개신들이 선
생년월일을 자주 출생하다느
것을 들고는 있었다. 사회
중개신이 돌아와서 선생년
은 이진대현원 석사과정의
재학 중인 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閔君, 자네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을 잘 알게. 그건 아주
하루부터 의욕으로 해나고
그 결과에 다스려만 하면
그는데 옳도까지 하면서 그
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나
야 시대적 배경 탓으로 사
회에 대해 약간 보고 들었
지만 그야 시대적 배경은

이 죄스런죄를 돌리시니 졌다
고 하였으니. 신원(神元) 그
러나 1949년 1월 『그대
그저 잘못한』과 『다들 잘못
구했으니』 같은 2개의 작
품이 이 책의 1부 내 장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
는 편이다. 신원(神元) 장사
중 1부 前에 일출(日出)은 대하의
평화(平和)를 보았으니, 책
이 나오기 전인 사제(沙濟) 세
스킨 신원(神元) 하얗은 모습
이 나타나 오르지니, 옹(翁)
신원(神元) 1969년 1월
8월과 신원(神元) 1971년 1월
이러나 전하의 전(轉)을 할
수 있는 1년은 옹(翁)과
장사의 신원(神元) 1971년 1월
마지막 1971년 1월 1일 신
원(神元) 1971년 1월 1일
다. 평(評)을 하니, 그대 오

—善本수집, 書畵에도 조
되었는데, 일행 전원의 혼
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싹집
게 공을 전량 헌해 버렸었
다. 장기를 어떻게 그리 잘
두시는나는 질투에 소년시
절에 두고는 두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셨다.

서울대학에서 물리나 신
위 선생님은 문화재보존과
계를 열심으로 맡아보셨
다.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
식을 바탕으로한 만년의 문
화재 보존과계 활동도 그만
면의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선생님의 著作으로는 「동
방문화교류사상고」(194
8)와 「동방사는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만년에 크
게 임포신「高麗史譯註」(東
亞大學刊)도 큰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의 학문의 사후사
적인 평가로는 서울대학의 역
李成珪 교수가 「한국사의 역
사가」(창작과 비평사)에
기고한 것이 있다.

그럼으로 수업시간의 분위
기는 열렬하기 그지 없었
고, 그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열망을
를 야기하지 못하게 하였
다. 그런데 선생님의 열
린 마음을 부딪친 기적이 없
다. 유년보다 후배인 오화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한 열
심을 청년의 열심보다 선생님께
를 훨씬 넘어서 선생님을
더러 부르며, 삼십년 「수단」
을 읽었다는 전설을 듣고 영
기를 북돋아 바르셨다. 그 때
다 하더라도 그 오화선생님
들이 그로써 수업시간의
열렬성이 해이해졌다고
까지는 알았던 것이다. 아
마도 삼대에 따라 열렬표현
을 약간 달리 하였을 뿐이
리라 생각된다.

『고려어』
선천도(善天圖) 유명한 善本수장가인 김경근(金敬根) 일편본 일편본 일이다. 6.25전에도 매우 훌륭한 선본수집을 하셨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타 대 부분의 불타고 살아남아 버렸다. 6.25후, 수집을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未版元版을 海外에 내놓으면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善本을 많이 수집하셨다. 선본년의 사제에 붙인 그 善本들을 다만 보은주시면서 판본연의 別冊 실패본류이로 일관주시던 것이 새롭다.

부산파단에서 활동한 뒤의 「고려어」 인사들의 불타판에서 개명사규판「사기」한서」를 산 일이다. 집에 갖고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東濱藏書」판본장서인의 別冊인 것을 발견하였었다. 「고려어」 미천 선본의 수량이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조준호선「고려어」하였다. 선천도(善天圖) 유명한 善本수장가인 김경근(金敬根) 일편본 일편본 일이다. 6.25전에도 매우 훌륭한 선본수집을 하셨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타 대 부분의 불타고 살아남아 버렸다. 6.25후, 수집을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未版元版을 海外에 내놓으면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善本을 많이 수집하셨다. 선본년의 사제에 붙인 그 善本들을 다만 보은주시면서 판본연의 別冊 실패본류이로 일관주시던 것이 새롭다.

깊어 鑑定자문역 말기도—



▲鮮于宗源(41년)
法大卒. 辯護士.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북한연구소가 제정한 제8회
「자문위원상」을受賞.



▲玄勝鍾(43년)
法大卒. 前國務總理. 2007. 12월 3일
도발전위회와 위원장에
推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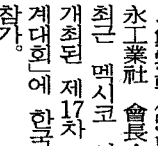
▲白文基(50년)
美大卒. 彫刻家. 藝術院會員. 冠岳會監事. 2007. 12월 3일
최근열인제40회
藝術院正기총회에서
美術分科委員會
회장으로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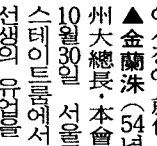
▲文仁龜(50년)
法大卒. 韓國法學院長. 本會理事. 2007. 12월 3일
리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16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아시아 지역 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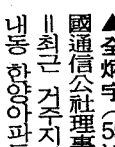
▲丁昌燮(51년)
美大卒. 母校名譽教授. 2007.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호안캘리포니아에서
歷 40년을 조명한 특별
이전을 가졌다.



▲鄭雲朝(52년)
農大卒. 朝鮮永工業社會長. 本會理事. 2007. 12월 3일
최근열인제40회
藝術院正기총회에서
美術分科委員會
회장으로 선출됨.



▲洪鍾徽(53년)
工大卒. 高麗大教授. 2007.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호안캘리포니아에서
歷 40년을 조명한 특별
이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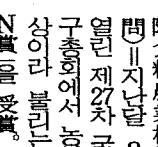
▲全炳宇(55년)
法大卒. 韓國通信公社理事長. 本會理事. 2007. 12월 7일
내동한양아파트 518호
101호로 옮겼다. 전화 7
12-2007.



▲韓甲洙(56년)
文大卒. 國產業經濟研究院
會長.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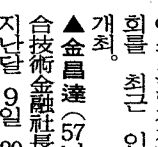
▲韓鏞徹(56년)
醫大卒. 母校教授. 結核協會長.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尙均(57년)
農大卒. 國際食糧農業機構
最高技術顧問. 2007. 12월 8일
로마에서
연인제27차
국제식량농업기구총회에서
농업분과회의
상임위원으로
N賞을受賞.



▲李龍兌(57년)
文大卒. 文大卒. 三寶金庫理事.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金鍾健(57년)
農大卒. 高麗大教授.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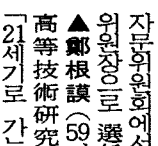
▲李吉女(57년)
醫大卒. 仁川中央市南



▲金東集(58년)
醫大卒. 癌病研究所長.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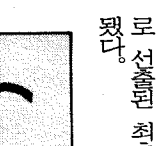
▲石世一(58년)
醫大卒. 母校教授.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鄭根讓(59년)
文理大卒. 高等技術研究院
院長.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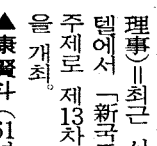
▲李相哲(60년)
商大卒. 企業銀行理事. 2007. 12월 1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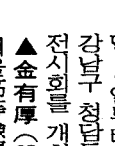
▲李相河(63년)
法大卒. 前國產院土地
事務官. 2007. 12월 27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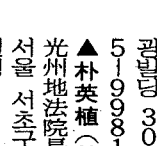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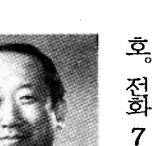
▲金有厚(63년)
法大卒. 前서울高等檢察廳
廳長.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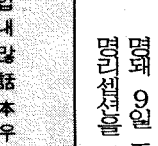
▲朴英植(63년)
法大卒. 前光州地方法院
院長. 2007. 12월 1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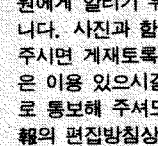
▲李相河(63년)
法大卒. 前國產院土地
事務官. 2007. 12월 27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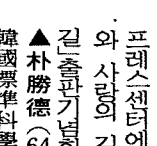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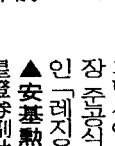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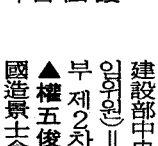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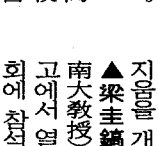
▲任玉彬(67년)
音大卒. 音大中央大教授. 本會理事. 2007. 12월 24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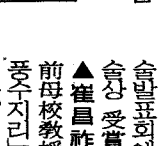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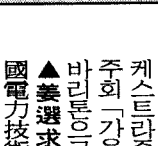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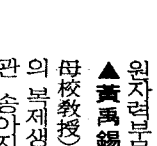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崔在讓(63년)
法大卒. 本會理事. 2007. 12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同院이
발간하는 월간「신동계」
창간 10주년 기념리선생을
개

동(動) 靜(靜)

이 欄은 同門들의 動靜을 全 회
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電
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
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年 3회 이상 거
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揭示板

結婚

- 同窓會館 冠岳廳
- * 박상준(90년) 人文大卒
 - * 김은숙(91년) 12월 4일 11시
 - * 김인희(91년) 12월 4일 12시 30분
 - * 김영옥(90년) 88년 工大卒
 - * 이은진(91년) 12월 5일 12시 30분
 - * 최완수(91년) 87년 美大卒
 - * 이은진(91년) 12월 5일 12시 30분
 - * 홍정희(91년) 88년 工大卒
 - * 김현정(91년) 12월 5일 14시
 - * 지영걸(91년) 88년 工大卒
 - * 박정선(91년) 12월 10일 13시
 - * 신하정(91년) 88년 醫大卒
 - * 이정은(91년) 12월 11일 12시 30분
 - * 이은진(91년) 89년 工大卒
 - * 박진영(91년) 12월 11일 14시
 - * 이은진(91년) 12월 11일 15시
 - * 이은진(91년) 12월 11일 15시 30분
 - * 정성호(91년) 85년 社會大卒
 - * 방일수(91년) 12월 11일 11시
 - * 이은진(91년) 89년 工大卒
 - * 박계희(91년) 12월 12일 12시 30분
 - * 김종환(91년) 86년 工大卒
 - * 문미애(91년) 12월 12일 14시
 - * 박현진(91년) 89년 醫大卒
 - * 김미희(91년) 12월 12일 15시 30분
 - * 조성권(91년) 90년 工大卒
 - * 이수정(91년) 12월 18일 11시
 - * 이은진(91년) 90년 經營大卒
 - * 김해자(91년) 91년 家政大卒
 - * 12월 18일 12시 30분

이제야 지난 5월초 각 과 중심으로 회합해오던 모인래 팀과 졸업30주년 이 되기금전을 모아 간행된 모임을 강도록 뜻을 모아「서울工大卒業30周年記

돌고 共同出資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모
日刊紙의 보도로 더욱 화
제가 되기도 했을 정도로

로 2천만원 이상 확보될
정도로 유망한 확고히 동
치고 있음이다"라고 趙總
지화장(趙總)인물로서 열성
어린 동기생에게 감사의
이사를 피력했다.

이날 금요일의 다소를 떠
나 전체 동기생 모두의 참
여의식과 열의에 따라 성
황리에 모일되었던 것이
다.

특히 사회활동에서
「한마아 밀어주기식」 벤처
기업의 탄생은 이미 前述
한 바 있는데 지난 81년
大慶機械技術(사장 金石模
·조식환)을 시발로 87

년 4월 모교(한림)의(사장

출자로 서우전산터 이르면
우애와 단결은 계속 되리라
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자부심이었다.

이제라도 민중의 후생을 위하여
에 힘입어 지난 5월엔 동
발연서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전국학생회
대회에서 서울대서예회가
단체상을 수상했다. 서울
대서예회는 매년 '단체상
에 참가해 왔으나 단체상

『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동무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력이 끊겨 소식을 전하지 못했거나 바빠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동무들의 정교인 참여를 부탁한다』며『참답』30주년 동무사에전에 전하실 작품들 쓰기 곤란한 동무들한테 예전에 써 놓은 작품도 가능하니 전원 출품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1면의 말을 하고 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10월 4일 ~ 11월 15일
一般: 10월 4일 ~ 11월 15일

人名 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會長團

▲회장 崔主鎬(1) 백만원

冠岳會

▲간사 白文基(1) 30만원

常任理事

▲楊銀淑(간호대응정회) 10만원
▲柳元圭(한정대학응정회) 장 10만원

理事

◇ 工科大学

- ▲權斗燮(61) 대한반도체사
- ▲金大旭(69) 연세대학교수
- ▲朴性圭(63) 하나은행사장
- ▲孫昌根(63) 신진산업사장
- ▲李基和(67) 태광산업사장
- ▲李善一(65) 동양철과사장
- ▲李忠秀(68) 전자INT사
- ▲張世文(66) LG개발사부
- ▲鄭然世(67) 한국신발회
- ▲鄭然澤(65) 신진부대회장
- ▲崔光俊(62) 신진산업사장
- ▲韓泰熙(60) E&G고문

◇ 農科大学

- ▲姜寅穆(58) 남원화간사
- ▲吳鳳國(62) 서울대학교수
- ▲劉太鍾(62) 안양대학교수
- ▲柳漢雄(62) 공진사장
- ▲林雄圭(63) 서울대학교수
- ▲全申德(65) 진불산사장
- ▲鄭春喜(63) 대전지검법무장

◇ 文理科大學

- ▲金雲泰(48) 서울대명예교수
- ▲金學圭(56) 서울대학교수
- ▲羅炳旭(49) 경북대학교수
- ▲宋漢虎(60) 서울대부총장
- ▲梁圭模(65) 진양회장
- ▲吳東重(63) 서울경제연구소장
- ▲李敬在(64) 미자당부회장
- ▲李基文(63) 서울대학교수

◇ 美術大學

▲李允姬(71) 서울대학교수

◇ 法科大学

- ▲郭秉珍(56) 중소기업중앙회
- ▲金鍾大(72) 부산지법부장판사
- ▲金昌浩(64) 현대증권간사
- ▲閔文基(38) 변호사
- ▲孫瑞鎬(55) 전남대법원법관
- ▲申昌東(61) 변호사
- ▲李珍雨(68) 변호사
- ▲李海遠(55) 두드윈드디커슨
- ▲鄭琪泳(55) 우진종합사장
- ▲曹大鉉(73) 대구지검지원장

◇ 師範大學

- ▲金三悅(58) 신원중학교장
- ▲金知泰(58) 용산고교장
- ▲盧相述(57) 부천공고교장
- ▲朴南基(55) 전고전도서관장
- ▲辛忠彦(77) 무학복자사장
- ▲安秉萬(46) 전주인성사사장
- ▲劉俊永(60) 계신고교
- ▲李漢星(57) 공학예신장사장
- ▲林昌圭(60) 신명여대부고교장
- ▲田贊和(64) 이여대교수
- ▲鄭璋鎬(59) 건원대학교수
- ▲趙吉濬(60) 서울과학교육원장
- ▲池潤鎬(55) 영종중학교장

◇ 商科大學

- ▲權寧大(60) 오리엔트해운사장
- ▲金龍鎬(59) 서울신대은행간사
- ▲南鍾鎬(67) 금성비서실
- ▲文孔訓(64) 부영은행사장
- ▲朴鍾根(61) 기부신상장
- ▲白承祚(67) 조흥은행사장
- ▲徐幸(64) 코오롱상사부사장
- ▲徐振錫(64) 화신은행사장
- ▲蘇在洙(64) 한기회사장
- ▲宋吉憲(59) 신한생명보험사장
- ▲宋文鎬(59) 한신상사부사장
- ▲元虎出(56) 동창회복지부장
- ▲李文相(55) 대한상회신용보증고
- ▲李昌一(65) (주) 대왕사장

◇ 獸醫科大學

- ▲金培源(64) 농우공업사장
- ▲車鍾相(60) 중앙가축안검사장
- ▲崔善佑(57) 대우산업본부

◇ 藥學大學

- ▲孟政永(60) 신희약국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
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 會費구분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一 般

◇ 醫科大學

- ▲羅成均(66) 나사렛과의원장
- ▲朴善奎(49) 한신보사회장
- ▲吳慶根(50) 안부인과의원장
- ▲柳榮龍(56) 유원신경외과
- ▲李秉化(62) 인천진진지병원장
- ▲李柄勳(66) 이병훈소아과의원
- ▲李鍾鎬(43) 이수중상부인과
- ▲林南宰(63) 이소아과의원장
- ▲朱權源(43) 한국자동차보험
- ▲韓鳳傳(58) 한복전내과의원장
- ▲韓鐵徹(55) 서울대학교수

◇ 齒科大學

- ▲金東羽(49) 시미치과의원장
- ▲金柄邵(42) 이리치과의원장
- ▲金瑞東(59) 동진치과의원장

◇ 人文大學

- ▲김민철(87) 김사업(85)
- ▲김영주(88) 김지영(79)
- ▲김창동(88) 김학복(83)
- ▲최인진(80) 최혜영(87)
- ▲최인진(80) 최혜영(87)

◇ 社會大學

- ▲고경원(87) 김광인(89)
- ▲김동환(86) 김승년(86)
- ▲김주차(83) 박지석(87)
- ▲서강근(87) 서원진(89)
- ▲이만수(80) 이순훈(89)

◇ 大學院

- ▲朴炳權(68) 해양연구소장
- ▲黃性均(71) 전의로보검관공

◇ 經營大學院

- ▲裴武煥(68) 과농대학장

◇ 保健大學院

- ▲金學燁(66) 중앙의료연구소장

◇ 司法大學院

- ▲梁基俊(64) 변호사

◇ 行政大學院

- ▲具本泰(73) 통일원사무국장

◇ 自然大學

- ▲최성대(89) 최지환(87)
- ▲홍이석(80)

◇ 家政大學

- ▲노미라(88) 박미란(89)
- ▲박인자(86) 최인진(88)

◇ 經營大學

- ▲김정대(86) 이대찬(86)
- ▲정우용(89) 조한승(77)
- ▲최준영(89)

◇ 工科大学

- ▲박평주(42) 오현(43)

◇ 農科大學

- ▲강희(74) 강병후(75)
- ▲강동춘(63) 강태모(88)
- ▲곽수년(75) 권영철(61)
- ▲권정현(66) 권진봉(78)
- ▲권경배(62) 김근영(69)
- ▲김재민(88) 김재은(75)
- ▲김정복(65) 김준환(55)
- ▲김창주(64) 박경수(75)
- ▲박관상(65) 박영훈(60)
- ▲백영준(65) 손광훈(66)
- ▲손석주(80) 신동호(82)
- ▲신서균(64) 심언용(88)
- ▲이영희(77) 유장길(64)
- ▲이영대(78) 이연수(69)
- ▲이준형(89) 이현복(68)
- ▲이형규(80) 이형훈(75)
- ▲장기선(54) 조병찬(68)
- ▲최상기(63) 최정화(68)
- ▲홍중해(76)

◇ 文理科大學

- ▲김진욱(61) 김영동(58)
- ▲김유식(60) 김인범(67)
- ▲김철관(71) 나가산(71)
- ▲남상규(71) 노홍권(64)
- ▲문병길(65) 문병국(57)
- ▲박용수(62) 박희환(56)
- ▲서기립(60) 서태상(70)
- ▲심세열(63) 소상영(48)
- ▲신대연(56) 신재철(57)
- ▲신종철(61) 우병기(55)
- ▲유원동(51) 유의웅(68)

▲조지훈	▲조병창	▲정병호	▲이종택	▲이산흡	▲이단근	▲오춘
(64)	(57)	(58)	(68)	(58)	(75)	(5)
▲최병언	▲조영주	▲조광해	▲이충희	▲이연수	▲이대형	▲오기산
(67)	(70)	(59)	(58)	(73)	(65)	(6)

▲ 김현주	▲ 김지성	▲ 김승경	▲ 김성년	▲ 김기동	▲ 권동일
63	55	59	52	59	61
▲ 김효석	▲ 김태경	▲ 김주남	▲ 김소곤	▲ 김명제	▲ 김계현
72	74	54	61	57	58

◆ 齒科大學

▲정무영 ▲홍성제 ▲전충환 ▲오세영 ▲김광익 ▲박현철 ▲이필중 ▲김기남 ▲박외환 ▲원사 ▲이시 ▲정미 ▲김영 ▲김범

母校



2學期 獎學金 52억 지급

최근 2學期에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지난 9월학기에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총 52억 4천 88만 8천 원이 지급되었다.

이 장학금 중으로 알려진바에 의하면, 재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총 52억 4천 88만 8천 원이 지급되었다.

장학금 17억 1천 33만 4천 원이 지급된 바에 의하면, 재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총 52억 4천 88만 8천 원이 지급되었다.

장학금 17억 1천 33만 4천 원이 지급된 바에 의하면, 재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총 52억 4천 88만 8천 원이 지급되었다.

農生大·獸醫大 冠岳캠퍼스 移轉 본격 추진

既存 건물 施設 보수 어려워 20년 숙원사업 예산확보가 문제

母校는 水原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을 冠岳캠퍼스로 移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년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기획예산처에서 9명으로 구성된 農·獸醫大 移轉推進企劃團(단장 裴基基)을 발족, 캠퍼스 이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母校에서 農生大들이 전할 경우 제2캠퍼스 후보지로 冠岳山 남쪽의 농대 수목원을 정지기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대안으로 조선중대 캠퍼스를 검토하고 있다.

인근 대학측 제2캠퍼스의 남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水原캠퍼스 인근에 移轉을 전제로 施設 補修 등 투자 전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 고교의 공인전부 비현상에서 나타나는 曠野 建築으로 현미경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연동되어 있다는 교육부의 확인으로 주창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본회의 회정안에서라도 당국과의 계속적인 협조와 모교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본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수완사업은 어떤 불려가게 될지 같다.

최근 모교에서 알려진바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모교 법대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5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백17명, 대학원 43명이다.

3개 분과위원회 설치

開校 50周 기념사업회 가동

지난달 21일, 96년에 맞게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운영을 보다 의미있게 행사를

로 만들기 위해 발족한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金商周)는

제1차회의가 金商周총장 자문위원이 모인 가운데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同窓會 회신하에 기념행사분과위원회, 출판·학술분과위원회, 회·기념조성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 선정기로 했다.

한편 同窓會에서는 本校 木校鳥 徽章 등 母校 象徵을 개교기념행사 象徴物로 활용하는 전제로 교목·교조를 서울대의 正體性을 뚜렷이 표상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안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장에 대한 검토토의를 學內공신기구인 學長會議에 제기하고 전무가의 자문과 學內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12의 工事費 들어 지난달 19일 의화도서관이 착공 1년만에 증개축 공사가 완료되어 개교기념 행사를 가졌다.

모교 중앙도서관 분관 의화도서관으로 개칭된 이 도서관은 그동안 장서의 증가와 열람정착의 공간 부족으로 증개축에 착공 12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主觀式문제 적응 어려워

大入2次試 「논술·요약」이 문제

모교가 지난 9월 실시했던 「94학년도 대학별고사제2차시험」결과를 보면 大入生들이 아직까지 대학별고사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국어(국문)와 영어과목에 한해 실시했던 2차시험 결과, 국문과 영어과목은 20일 고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국문)의 경우 1차시험에 비해

早期 강의제 도입

94년 1학기부터 10개학과

모교 수업과에서 최근 알려진바에 따르면 일부기

업에서 조기출퇴근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獎學金 1억 李千萬씨 기탁

留學中 死亡한 아들 湘泰 기탁

留學中 갑자기 사망한 아들을 기탁한 湘泰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한 아버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李千萬(동대문구 제1기공금주)은 84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李千萬(동대문구 제1기공금주)은 84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李千萬(동대문구 제1기공금주)은 84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李千萬(동대문구 제1기공금주)은 84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李千萬(동대문구 제1기공금주)은 84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88년 8월 4일 스포츠조선에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

이날 1학기부터 10개학과에서 조기강의를 도입한